

△격려사△

이미지와 함께

校長 李 東 旭

나타나렐. 허어소(Nathaniel Hawthorne)작품중『The Great Stone Face』라고 하고 中篇傑作物이 있습니다。 이 作品에 登場하는 中心人物은 Ernest 라는 소년이 모친의

무릎위에서 자라던 영아 때로부터 늙어 白髮이 醒醒하게 될 때까지의 生涯를 不過數千名의 주민이 살고있던 山골짜기 작은 洞리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중심하여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 동리를 둘러싼 岩石으로 된 絶壁에는 돌로써 一〇〇피트도 넘

는 石像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聖스럽고도 참다운 얼굴 모습에 傳說이 얹혀져 있었으며 그 전설에는 이 洞里에는 언젠가는 그 石像과도 같은 훌륭한 人物이 일어나서 그 마을을 빛나게 하여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Ernest라는 少年도 이 傳說속에서 그것을 믿고 큰 인물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이 Ernest의 生涯中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나왔습니다。

첫번째 사람은 개더골드라고 하는 큰 富者요, 둘째번 사람은 百戰百勝하는 大將軍이요, 세번째는 大統領에 立候補한 智謀있고 能辯家인 大政治人이요, 네번째는 甘受性이 豊富한 詩人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큰 인물이 나타나 傳說은 現實化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가는 얼마

時間이 안 가서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들의 存在와 大石像과의 사이에는 대단한 거리가 있는 것을 發見하곤 하였읍니다。 이 가운데 Ernest라는 소년이 靑年으로 청년이 장년이 되고 壯年은 白髮이 성성한 노인으로 變해가고 있었읍니다。 그는 이 傳說이 이루어지기를 眞實로 苦待하는 가운데 그 洞里를 떠날이 없이 자기의 일을 기쁘게 했으며 부지런히 讀書와 思索으로 나날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老境에 네 재번에 나타났던 詩人은 그 詩人으로서의 靈感으로써 이 Ernest야말로 바로 傳說의 인물이며 『Great Stone Face』의 무덤인 사람이라고 동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쳐서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果然 이 Ernest야말로 그 石像의 人物과 같이 高邁하고 그의 머리의 白髮과 더불어 깊은 智慧와 寬容의 人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말할 때에는 그 自身이나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더듬어 찾아내곤 하였읍니다。 그의 생활은 그의 思想과 언제나 一致 되었으며 그의 말은 언제나 꿈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의 말은 힘이 있어서 그의 사상과 行動으로 뒷받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생활은 每日의 生活에서 調和가 이루어졌었으며 그의 사상과 감정은 單純하면서도 高尚하였읍니다。

그는 富者처럼 金錢과 같이 사라지는 名聲이 따르던 것도 아니고 金錢이 없어질 때 같이 사라질 인품도 갖지 않았읍니다。

그는 大將軍과 같이 칼을 가지고 戰爭마당에 서서 大勝利를 거두는 快事는 없었으나 그러나 그 將軍에게는 없는 부드러운 智慧와 깊고도 溫和한 同情心이 가슴 가득히 잠겨 있었읍니다。

그는 大政治家처럼 듣는 이로 하여금 選擇의 餘裕를 줄 수 없을 정도로 能辯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나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를 떠날 수 없게끔 깊은 感

動을 주었고 어디선가 위대한 人物을 본 것 같은 感懷에 잠기게끔 하였읍니다.

그는 詩人과 같이 자주 꿈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 꿈이 꿈으로만 끝나는 思想과 連結이 없는 꿈이 아니라 언제나 思想이 꿈으로 꿈은 善行으로 바뀌는 그러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純粹한 마음으로 熱心히 끊임 없이 일하였으며 많이 생각하는 사람 많이 느끼는 사람 또 그것을 착한 行動으로 옮기는 힘을 갖고 있는 人物이었읍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어 보며 또 읽어 볼 때마다 많은 시사와 感銘을 받읍니다. 그의 生涯가 주는 의미가 마음을 움직여 주며 또한 그의 生活의 하나하나의 過程이 흐릿하게 가슴을 축여 주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分明히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읍니다. 多幸히도 그 이미지가 그에게 있어서는 朝夕으로 볼 수 있는 곳에 位置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이미지』가 주는 靈感에 사로 잡혀서 그의 일생을 살았으며 그 靈感이 純朴하면서도 고상하고 신중하면서도 사려깊은 인물과 점점 變化시켜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人格의 變化는 個個人의 가슴에 품고 있는 『이미지』의 품격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少年時節가슴 속에 뜨겁게 간직하고 출발한 『이미지』는 그 人生의 終着點에 到達하였을 때에 그 값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뜨겁게 부푼 가슴속에 간직된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남몰래 간직해둔 이것이 純情과 노고를 아낌없이 퍼부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요. 고요히 살피 봅시다.

흐려진 눈 흐려진 마음의 호수에는 이 『이미지』가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맑고 언제나 곧고 언제나 담담한 가슴속에라야 Ernest의 눈에 비쳤던 『이미지』와 같은 뚜렷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仁聖의 동산에서 자라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귀한 少女들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화실에 고요히 앉아 화필을 달리는 화가의 가슴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것이 캔버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五線紙에 붓을 달리는 作曲家의 가슴 속에는 노도광홍이 바위를 삼키는 성난 바다가 안겨있기도 하며 졸졸졸 여름비를 녹여 가며 梅花에게 이르는 봄 소식을 傳해주는 童心の 世界도 안겨 있을 것이며 피비린 내나는 전쟁터에 오직 祖國의 繁榮과 幸福을 빌며 쓰러지는 젊은이의 외침도 간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 없이는 眞實한 人生의 반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조각은 媚女가 꾸구리고 못난 모양을 그대로 새

긴 것입니다。 고개를 깊숙히 숙이고 全身에 살은 떨어져 마른 뼈가 두드러지고 목은 빠지고 가슴은 우구려져 極度의 老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金色의 美를 자랑하던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세어졌고 秋波를 만인에게 보이던 곱던 눈은 우무려진 활속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팔던 붉은 입술은 落齒라 해서 오무러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던 그 가슴은 말라 시들어져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그는 自己를 잃고 自我가 없이 살아온 人間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卽『이미지』가 없이 살아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虛妄한『이미지』로 自己를 속이는 生活로 一生을 마쳐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仁聖의 아름다운 少女들에게 주려는『이미지』를 펴보려고 합니다。

그『이미지』는 二〇〇〇년전에 나사렛洞里에서 자라나서 한 발자국도 그 나라밖에 나가 보지 못한 한 사람의 가난한 木手의 아들입니다。

그는 富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軍隊의 將軍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 잘하는 政治家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勿論 文章家도 詩人도 아닙니다。

그는 默默히 苦難의 길을 밟아서 골고다까지 올라간 天下의 못난 人間입니다。

그는 거기서 맥없이 죽고 말은 人間입니다。 죽어도 가장 苦生스럽게 죽어간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나사렛 청년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고이고이 간직할『이미지』로서 주고 싶은 것입니다。 Ernest의『이미지』가 Ernest를 變化시켜 그『이미지』를 담아간것처럼 내가 여러 少女들에게 안겨준다

『이미지』가 여러분의 生活를 變化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 이미지가 주는 靈感에 사로잡혀서 素朴하고도 高尚하고 신중하면서도 생각이 깊은 인물들로 날마다 變化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仁聖』二호가 나가는데 그 구석구석에서 나는 그 감추어진『이미지』를 찾아 보고 싶습니다。 이 한장 한 장 사이에 글자 하나하나 사이에서 이 이미지를 찾아가는 줄기찬 모습들을 얻어 보려고 합니다。